

대만 선거결과 영향에 대한 홍콩 금융시장의 견해

- 1.13일에 예정된 대만 선거* 결과에 따라 미중 갈등 심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우려가 제기
 - * 대만 정부총통 선거 및 대만 입법위원(국회의원) 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예정
 -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반중성향인 민주진보당(민진당)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중국의 무력시위 등 대만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
- 홍콩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민진당의 여론조사* 우세에도 불구하고 금번 대만 선거결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
 - * 마지막 여론조사(1.2일 발표)에서는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32%, 국민당(친중) 허우유이 후보가 27%, 민중당(중도) 커윈저 후보가 21%의 지지율을 기록
 - 다수 전문가들은 총통 선거에서는 민진당이 승리*하더라도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다수당의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 강한 반중정책을 실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
 - * 총통 후보간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인 민진당의 장기집권에 따른 환멸 등으로 민진당이 압승하기 어렵고 오히려 일부에서는 친중 성향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
 - 최근 대만 금융시장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비교적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음
 - * 작년 12.1~금년 1.4일중 대만주가지수 0.67% 상승, 대만달러 0.82% 절상
- 특정 정당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중 정책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경우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할 명분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
 - 중국 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도 지정학적 갈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

작성자 : 홍콩주재원 김민규 차장